

음악 교육 동향*

2015년 여름학술대회 보고서

김영미(청주대학교)

1. 학술대회 개요

한국 음악교육 분야에서 최대 규모인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제46회 여름학술대회를 성신여자대학교에서 2015년 8월 12일 화요일과 8월 13일 수요일 2일간 개최하였다. 2015 여름학술대회는 ‘음악교육과 핵심역량’ 주제로 한국 음악교육학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교원대학교 이홍수 명예교수가 “음악교과의 당위와 소임”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학술대회기간에서 워크숍, 연구 발표, 우수수업발표, 포스터 세션 등에서 음악교육학자와 현장교사의 긴밀한 교류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년·초등·중등 음악교육과 국악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하고 분과별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수 방법이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교육과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다루었다.

1) Workshop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강사들이 다양하고 실제적 ‘활동을 제시하고 함께 활동하여 참여자들이 음악 교육 실재를 직접 체험하였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학교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2) 연구논문발표 및 포스터 세션

연구 발표자들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음악교육 연구의 활성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이와 함께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은 포스터 세션을 열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연구발표의 장이 되었다.

3) 우수수업발표

우수한 현장 교사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소개하고 더 나은 음악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4) 연주회

학생부터 전문 연주인까지 다양한 연주자들이 서양 음악과 한국음악을 다양하게 연주하여 이론 연구와 실제 음악 연주가 어우러지는 참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학술대회는 음악교육학, 음악학, 실용음악, 한국음악, 유아음악교육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자와 현장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이 함께 여러 분야를 통합하고 융합함으로써 각 전공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접목시키며 교육적 사고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었다.

2. 학술대회 세부 내용

한국음악교육학회의 여름학술대회는 음악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연구물들을 발표하는 장이다. 참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하는 음악교육 교수 및
- 유아교육 교수 및
- 초등·중등 음악 교사 및 유아교육 교사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음악교육과 핵심역량’으로 주로 음악과 학습에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음악교과의 당위와 소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한 한국교원대학교 이흥수 명예교수는 음악 교과의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음악교과 전반적 수준은 거의 전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해 결정되고 수업의 질은 교과서 내용, 교사의 교수 능력, 그리고 음악과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교육의 소임을 ‘교과 당위에 따른 소임’, ‘교수학습 과정상의 소임’, ‘내용 선정-조직상의 소임’ 등으로 세분화 하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음악교육자들에게 교과서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여름학술대회에 더 많은 우수수업사례 발표를 진행하여 교육현장의 직접적·효율적 수업지도안과 실천사례 및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소개하였다. 발표 내용은 현장 교사들이 수업에서 실시한 내용과 교수·학습 활동 자료를 소개하여 동료 교사와 예비교사들과 함께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하는 시간이었다. 우수 수업발표에서 교사들은 ‘초등 음악수업에서 창작’, ‘CF음악 만들기’, ‘변주곡 만들기’ 등 창작활동에서 인성 교육으로 연계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와 더불어 가창 수업, 연주 수업, 우리 음악 감상 수업 그리고 음악 활동간 연계 또는 교과목 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모둠별 뮤지컬 만들어 공연하기’도 소개하였다.

워크숍은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강의하였다. 참가자들이 강의를 듣고 참가자 전원이 함께 실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응용하여 수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음악 활동들 즉 ‘우쿠렐레 활동’, ‘우리 음악 판소리’, ‘단소 활동’, ‘보이스 트레이닝’, ‘아카펠라’, ‘화성 감수성과 즉흥 연주’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음악과 신체 표현, 다양한 음악 활동 지도방안, 음악 지능과 감수성, 통합교육과 융합교육, 음악 수업에서 다문화 교육, 교육과정과 핵심역량 등을 다양한 연령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여 발표했다. 연구 발표와 포스터 세션에서 예비 교사, 현장 교사, 석·박사 과정 연구자들, 대학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현재와 미래 음악교육을 위해 여러 연구 자료와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발표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음악교육 연구의 활성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학교음악교육의 실행 및 실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음악교육자들이 교류하여 음악교육학자와 현장교사가 긴밀한 교류하며 이론과 실체가 동반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유·초·중등 음악교육 분야에서 분과별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이 조화와 소통을 하는 융합교육을 연구·개발하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더불어 미래 음악교육 연구를 책임질 석·박사과정 학생들 양성을 위해 학문적으로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학회는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 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조직이므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음악교육학회가 매년 개최하는 여름학술대회는 한국음악교육계가 나아가야 하는 길과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음악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연구 분야에서 콜로키움이나 워크숍 또는 분기발표회를 통해 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고 발표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 음악교육이 세계화하기 위해 2016년 개최될 세계학술대회 위한 준비 역할을 하게 되었다.